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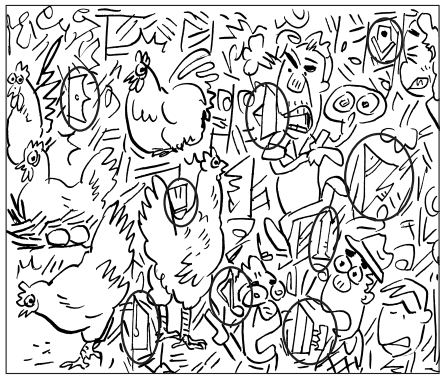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 72 >



찾아보세요! 셔플룩, 제비, 새집, 송사리, 고추, 열대어, 멧돼지, 바늘

높이 제한

운전사와 한 친구가 트럭을 몰고 가는 데 터널이 나왔다. 터널 위에는 '높이 3.5m 제한'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두 사람은 얼른 내려 차의 높이를 잰다. 불행하게도 차는 4m.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그때 운전사가 앞뒤를 살펴보니 말했다. '야, 교통경찰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자.'



지난주 정답 음표, 뭉, 종이배, 셔플룩, 펜촉, 왕관, 다리미, 열대어, 새집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김남형 <광주시 북구 용봉동> 진영현 <광주시 남구 양림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만델라, 남아공 첫 흑인 대통령 취임

1994년 5월 9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마이클 코베트 대법원장이 넬슨 만델라를 남아공의 대통령으로 공식 선포하면서 남아공의 근대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취임은 342년간 소수 백인이 줄곧 지배해온 통치와 46년간 유지해온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가 종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피부색깔에 관계없이 평등한 선거권이 주어졌고, 흑인과 백인이 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20세기 인권 운동의 상징으로 불리는 넬슨 만델라. 그는 남아프리카 흑인 해방운동의 역사만큼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40여년에 걸친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투쟁, 감옥 생활, 노벨 평화상에 남아공 최초 흑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생은 남아공의 현대사 그 자체였다. 그가 오랜 감옥 생활에서 석방된 1990년 2월 11일, 감옥 앞에서는 수천의 군중이 검정·녹색·노랑의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삼색기를 흔들며 그를 맞았다. 그가 케이프타운에 몰려든 군중들에게 외쳤던 "힘, 힘, 아프리카는 우리 것!"이라는 말은 이후 그가 가는 곳마다 터져 나왔다. 27년간을 감옥에서 보냈고 72세의 노인이 되어서야 석방된 탓에 그의 수인(囚人)번호 '46664'는 또다른 이름이 됐다. 27년의 수감 생활 중 18년을 보냈던 로빈 아일랜드의 교도소는 관광 명소가 됐다. 그는 아프리카의 빛이었다. 그는 1918년 7월18일 남아공 케이프타운 동부 트란스케이 지역에서 조각 아들로 태어났다. 조각의 자리를 오를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하고 포트헤어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등 서구학문을 공부하면서 남아공의 모순과 현실에 눈을 떴다. 1944년 아프리카 민족회의에서 비폭력 투쟁 방식을 통한 흑인인권운동을 벌이다 60년 '샤프빌 학살' 사건을 계기로 비폭력에서 무장투쟁으로 선회한다. 민족회의내에 무장투쟁 조직인 '민족의 창'을 결성하고 활동하다 62년 체포된 뒤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옥중에서 다른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7년만에 석방된 뒤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하고 백인정부와 인종차별정책 철폐를 위한 협상을 벌여 흑백간 유혈 분쟁을 해소하는 길을 열었고 이로 인해 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이후 남아공 사상 처음으로 흑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60% 이상을 득표하며 새 대통령에 당선됐다. /김지들기자 dok2000@kwangju.co.kr



1990년 2월 감옥에서 석방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넬슨 만델라(사진 왼쪽).

KT바둑 왕위전 16강. 목진석의 구상 6보(83~103). White 윤찬희 9단, Black 목진석 9단. Includes a Go board diagram and text about the match.

바둑소식. 윤혁 5단, 온소진 3단 제압. 윤혁 5단이 8일 서울 여의도 스키아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1회 SK 가스배 신예프로10결전 A조 본선리그에서 온소진 3단을 320수까지 가는 접전 끝에 흑 5집 반으로 꺾었다. A조리그는 현재 박승화 3단이 2승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윤혁 5단(2승 1패)과 허영호 5단(1승)이 뒤를 쫓고 있다. 현재 11승 9패를 기록하고 있는 윤혁 5단은 LG배 본선에 오르지 못했지만 최근 7승 2패의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 대회는 만 25세, 5단 이하 기사들만 참가하는 제한기전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뉴스퀴즈

63. 광주제일고가 지난 3일 제 41회 대통령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 전국 대회 통산 20번째 우승의 금지탑을 세웠습니다. 지난 1923년 창단된 광주제일고 야구부는 80~90년대 들어 전국 대회에서만 11개의 우승기를 휩쓸며 한국 야구의 명문고로 자기매김했습니다. 광주제일고를 나와 국내 프로야구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광주제일고 출신이 아닌 야구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박찬호 ② 김병현 ③ 최희섭 ④ 이종범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대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9일(음 3월 23일 癸卯). Table with columns for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굿모닝 잉글리쉬 <900> I couldn't ask for more 난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어(난 이걸로 만족해)
A: I can't believe the weather is so gorgeous for your wedding.
B: Yes, it is perfect.
A: And all of the flowers are in bloom.
B: I couldn't have asked for more.
A: 당신 결혼식 때 정말한 날씨, 믿을 수가 없네요.
B: 그렇죠, 정말 좋네요.
A: 게다가 꽃들이 만발하잖아요.
B: 저는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없군요.
gorgeous : 훌륭한, 화려한
be in bloom : (꽃이) 만발하다.
It is perfect.
= I couldn't have asked for more.
= This beats all.
= This is the best of all.

오하요우 니혼고 <900> 體(からだ)の具合(ぐあい)でもわるいの 몸 상태 좋지 않니?
A: 體(からだ)の具合(ぐあい)でもわるいの。
B: そうじゃないんだけど、ちょっとね。
A: さっきから元氣(げんき)がなくて、しょぼりしてるから。
體(からだ)の調子(ちょうし)がわるいのかと思(おも)ったよ。
B: 實(じつ)は、財布(さいふ)をなくしちゃって。
A: 몸 상태 좋지 않니?
B: 그렇지 않지만, 조금.
A: 아까부터 힘이 풀이 죽어 있으니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
B: 실은 지갑을 잃어버려서.
體(からだ): 몸, 신체
具合(ぐあい): 상태
調子(ちょうし): 상태, 흐름
のかと思(おも)った: ~인가 생각했다

니하오 쑹구위 <91> 你能帮我买一张吗? 너는 내가 한 장 사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니?
A: 你放的音乐真好听。
Ni fang de yinyue zhen hao ting.
니 방 더 인위에 썬 하오팅.
B: 这张CD是我刚买的, 前几天还买不到呢。
Zhe zhang CD shi wo gang mai de, qian jiu tian hai mai bu dao ne.
저 팽 스 위 강 마이 더, 치엔 지 티엔 하이 마이 부 따오 너.
A: 你能帮我买一张吗?
Ni neng bang wo mai yi zhang ma?
니 념 방 위 마이 이 팽 마?
B: 可以。
Ke yi.
크어 이
A: 네가 틀은 음악은 정말 좋다.
B: 이 CD는 내가 방금 산거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살 수가 없었어.
A: 너 나한테 한 장 사줄 수 있니?
B: 그럼.
放音乐 [fang yinyue] 음악을 틀다
买不到 [maibu dao] 살 수가 없다.

한자 이야기 <517> 門前雀羅 (문전작라) 문문, 앞 전, 참새 작, 그물 라
문전작라(門前雀羅)는 문 앞에 참새 잡는 그물을 친다는 뜻으로 관세를 잃거나 빈철푼다면 문 앞에 새그물을 쳐놓을 수 있을 정도로 방문객의 발길이 끊어진다든 비유이다.
한나라 무제 때, 높은 벼슬을 지낸 금안(汲黯)과 정당시(鄭當時)는 모두 개성이 강한 탓에 좌천·면직·재등용을 거듭하다가 벼슬을 마쳤다. 이들이 현지에 있을 때는 방문객이 늘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루었으나, 면직되자 발길이 뚝 끊어졌다고 한다.
이에 사마천은 다음처럼 평하였다. 금안과 정당시 정도의 현인이라도 세력이 있으면 빈객(賓客)이 열 배로 늘어나지만, 세력이 없으면 당장 모두 떨어진다. 옛적에 적공(翟公)도 벼슬할 때는 빈객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으나, 면직되자 빈객은 뚝 끊어졌다. 집 안팎이 얼마나 한산한지 '문 앞에 새그물을 쳐놓을 수 있을 정도(門外可設雀羅)'였다. 적공이 다시 벼슬을 하자 빈객들이 다시 모여드는 것을 보고 문 앞에 이렇게 써 붙였다.
한번 죽고 한번 삶에 곧 사람의 정을 알고 死一生 即知交情
한번 가난하고 한번 부함에 곧 사람의 태도를 알며 一貧一富 即知交態
한번 귀하고 한번 천함에 곧 사람의 정이 드러나네 一貴一賤 即見交情.

더마플라스트 밴드.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용터없이!! DermaPlast.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